

사촌동생과 만난 날

금요일 저녁에 이모한테 전화가 왔다. “OO야 이번추석에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 무너질 듯 좌절했다.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나는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 내가 한참 울고 나서 이모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 “OO야 OO가 하도 가고 싶다고 울어서 내일 새벽에 갈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언제 울었냐는 듯 눈이 맑아졌다. 기분이 좋은 채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사촌동생이 왔다. 사촌동생이 와서 놀고 게임하고 먹었다. 점심에는 감자탕을 먹었는데 사촌동생하고 노느라 내가 많이 좋아하는 감자탕을 적게 먹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감자탕을 먹고 나서 또다시 놀았다. 사촌동생이 저녁에 갔다. 사촌동생하고 좀 더 못 놀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최고의 하루였다.

글: 최현우



(출처:수복얼큰감자탕)